GIT 사용후기

문민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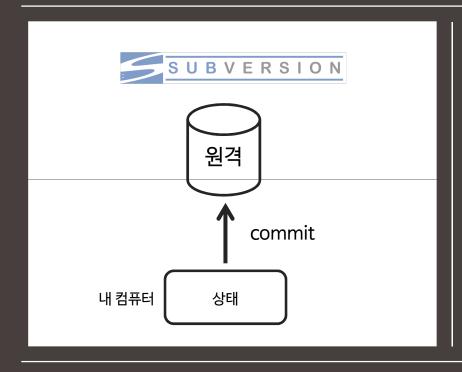
INDEX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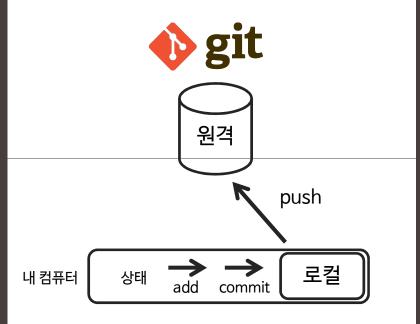
- 1. GIT
 - 1-1. svn 첫 사용 느낌
 - 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1-3. git 브랜치
- 2. GIT 원격 저장소 서비스

1-1. SVN 첫 사용 느낌

"단순, 명확, 편하네"

1-1. SVN 첫 사용 느낌 - 왜?





1-1. SVN 첫 사용 느낌 - 왜?

- git과 svn 사용패턴이 같았음. -브랜치없이, 마스터하나만 가지고 개발 - svn에서는 원격 저장소 commit에 대한 단계가 단축

=〉 "편하네"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회사의 개발

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요구사항?

PSR-1234

TC 1 : A기능 추가

TC 2: B기능 추가

TC 3 : C기능 추가

TC 4: D기능 추가

배포일: YYYY.MM.DD

Original.version

Original_TC1_TC2_TC3_TC4.version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현실

1. 요구사항이 변한다. => 이관 직전 버전을 예측할 수 없다.

"TC4는 빼주세요."

"TC3빼고 TC5, TC6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?."

"TC2 요구사항을 잘못 썼네요~ 수정부탁요~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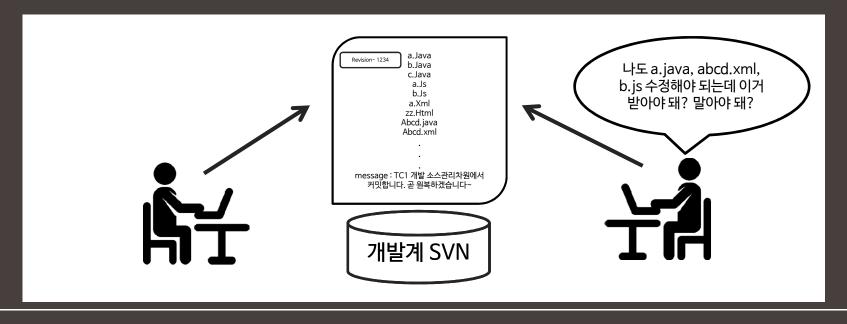
"TC5 요구사항 다시 드릴께요…"

Original_TC1_TC_??????.version

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현실

2. 기능 하나의 개발에 많은 소스들이 수정된다. => 나만의 소스 버전관리 필요

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현실

3. 하나의 기능도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. => 실험용 버전 필요









1-2. GIT의 소중함 느낀 계기 - 종합

- 1. 돌아가고 싶다. 그 때로.
- 2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, 다 해보고 싶다.
- 3.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만 선택할 수 없을까?

"인생과 비슷하다"

1-3. git 브랜치 - save가 없다면?



개발 : 관련된 파일들을 색출, 원복한다. = "발라낸다"



1-3. git 브랜치 - save가 없다면?

돌아가고자 했던 시점의 상태와 100% 똑같다고 확신가능한가?



1. Save 시점(branch, tag)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다.(checkout)

```
public@minsik MINGW64 /d/GIT/gitPpt (master)

$ git branch

* master

처음상태
처음상태+TC1+TC2

처음상태+TC1추가

처음상태+TC2+TC3

처음상태+TC2추가

처음상태+TC3추가

처음상태+TC3추가
```

2. 버전 별 간섭없이, 여러가지 실험을 하거나, 놀 수 있다.

```
public@minsik MINGW64 /d/GIT/gitPpt (master)

$ git branch

* master

처음상태

처음상태 +TC1+TC2

처음상태 +TC1추가

처음상태 +TC2+TC3

처음상태 +TC2_java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jquery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jquery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jquery로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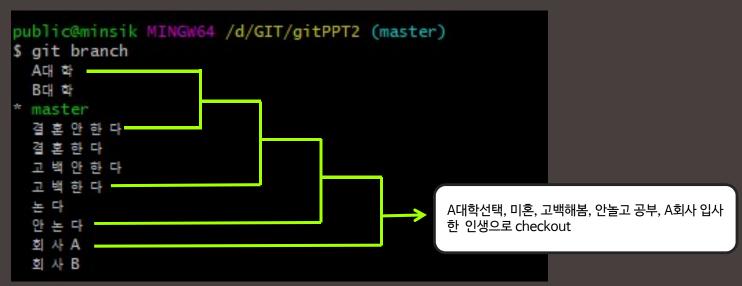
처음상태 +TC2_pquery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pquery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pquery로 구현

처음상태 +TC2_pquery로 구현
```

3. 다해보고, 취향에 맞게 골라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. (브랜치 merge)



- 1. 발라내지 말고 checkout
- 2. branch, tag로 마음껏 놀기 3. 골라서 merge

인생은 checkout할 수 없으니 git에서라도…